보호자 소식지

모두의 존엄이 꽃피는 학교

제2호 차별과 혐오를 넘어, 모두가 평등한 학교문화

- 【인권칼럼】 혐오표현으로부터 우리 학생은 안전한가?(이혜정, 경기도교육연구원)
- 【인권칼럼】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 실천(강문민서, 국가인권위원회)
- 【학생인권옹호관의 학교사례 돋보기】 학교 일상에 가까이 있는 혐오와 차별

"혐오표현 급증의 사회적 상황과 함께 하는 공동체로서의 우리"

코로나-19에 따른 혐오표현 급증

-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사회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이 국내・외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 감염증에 대한 공포와 불안한 마음을 특정 집단의 책임으로 돌리는 혐오표현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대상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여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COVID-19 관련 혐오표현 사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혐오표현

- 특정 국가・지역 출신 학생, 특정 종교를 가진 학생에 대해 '코로나야', '바이러스야'라고 지칭
- 특정 국가・지역 출신 학생과 자녀가 같이 수업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학교에 요구한 사례
- 길 가던 중국인에게 '돌아가라'고 소리치거나 식당 앞에 '중국인 출입금지'를 부착한 사례
- 일부 국가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 학생의 수업 참석을 금지한 사례
- 코로나-19를 옮기지 말라며 한국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해외 사례 등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공동선언

-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혐오표현이 학교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에 주목하고 2018년 「학교 안 혐오 현상과 교육의 과제」(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육적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 2019년 11월, 2020년 5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을 통해,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공동체를 위한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경기미래교육의 존엄, 정의, 평화 가치 지향

-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고 상호간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은 학생이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찾고 공동체와 함께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해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2023 GYEONGGI EDUCATION PLAN

나를 알자, 함께 가자, 내일을 열자

존엄한 인간,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미래

"이번 소식지에서는 학교 안 혐오현상과 대책,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성찰해볼 내용을 전문가 의견과 국가정책 등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오표현으로부터 우리 학생은 안전한가?

이혜정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혐오, 가장 일상적인 또래문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엄마를 비하하는 '패드립'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서로가 서로를 모욕하는 혐오표현을 일상적으로 쓴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면, 그런 현상은 일부 학교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고 대다수의 보호자들은 내 아이는 그런 '나쁜 말'을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2018년 〈학교 안 혐오 현상과 교육의 과제〉 연구*를 수행하면서, **혐오현상이 일부 학교나 청소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일어나는 매우 일상적인 또래문화라는 걸 발견**했다.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한 학생, 공부나 게임을 못하는 학생, '튀는' 행동을 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은 진지한 분위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청소년들은 "장난으로", "친하니까" 서로에게 혐오표현을 쓴다. 교실에서 누군가를 멸시하고 모욕감을 주는 혐오표현이 사용되고 나면, 청소년들은 모두 "ㅋㅋㅋ" 하고 웃는다. 이들에게 혐오현상은 지루한 일상을 재미있게 해주는 우스개꺼리, 친한 사이에서 부담 없이 주고받는 농담 같은 것이다.

혐오표현이 또래문화 속 장난과 유머로 소비되고 있기는 하지만, 혐오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은 상처를 받거나 화가 난다고 이야기했다. 혐오는 소수자 집단을 부정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 환원하고, 그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강한 증오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걸 듣는 사람은 모멸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으며 분노와 절망감을 경험하게 된다. 학교 안에서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욕적인 동시에 사회적 소수자에게 향하는 비난과 낙인, 배제를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이러한 혐오현상이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상처와 고통에 대해 진지하게 문제제기 하기 어렵다. 교실 안 혐오현상으로 인한 상처와 고통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 학생은 '진지충'이라는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혐오표현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넘어가는 대응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의 혐오

청소년의 혐오현상에 대해 기성세대가 갖기 쉬운 오해 중 하나는 이를 일탈의 문제 혹은 세대의 문제로 보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혐오표현은 욕설이나 비속어와 유사하고, 실제로 혐오표현을 통해 또래를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혐오현상을 일부 '나쁜 아이들'이 저지르는 일탈로 여기기 쉽다. 그리고 혐오표현이 주로 청소년들이 향유하는 뉴미디어에서 만들어져서 유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나쁜 미디어'를 즐기는 청소년 세대가 이전과는 달리, 유독 '나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으로 여기기도 쉽다.

그런데 혐오현상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상적이고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나쁜 아이들'의 일탈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혐오현상의 원인이 '나쁜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뉴미디어에만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미디어에서 나오는 혐오의 언어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 뒤에는 누군가를 혐오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하도록 하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 청소년들에게 또래문화로 나타나는 혐오현상은 소수자 ·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만연한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적인 차별과 폭력에 대해 법적, 제도적, 문화적 대응과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맥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컨대, 여학생의 외모에 대한 혐오표현이 교실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은 학교에서 여학생의 외모가 품평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한국사회에 지배적인, 여성의 외모를 강조하고 강요하는 문화의 연장선에 있다. 대중매체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여성의 외모 품평, 날로 번성하는 메이크업 산업과 성형 산업은 학교 안 외모의 성별 정치학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학교 안 여성 혐오는 기존의 성별 고정관념을 고착화하고, 이러한 고정관념은 성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혐오는 사회적인 소수자 집단에 대한 멸시와 증오의 감정이고, 그 집단의 특성을 부정적인 것으로 환원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혐오의 감정은 혐오표현을 하게 만들고, 이를 제어하지 않고 용인하는 사회에서는 혐오범죄까지 일어날 수 있다. **사회적인 차별과 배제의 구조와 문화는 청소년들이 쓰는 혐오표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이러한 혐오현상을 통해 학교 안에서 재생산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구조를 재생산하는 고리가 될 수 있다.**

취약한 존재로서의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학교 안 혐오현상 연구에서 관찰했던 교실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이 교실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이상적인 외모를 가져야 하고, 학업성적도 좋아야 하며, 튀는 행동은 하지 않고 게임이나 운동도 잘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춘 학생은 거의 없거나 극소수이다. 사회적으로 보아도 그렇다. 경제력과 능력, 외모, 건강한 몸, 사회적 지위 등을 모두 갖춘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취약한 존재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용인되는 사회에서 우리 모두는 언젠가 혐오의 대상이 된다. 우리는 모두 결국 취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인간의 나약함과 결핍에 대한 공포가 혐오를 낳았다고 본다. **혐오의 질서가 아니라 공감과 연민, 연대의 질서로 가는 길의 시작은 취약한 나 자신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정과 사랑은 우리의 자녀, 조카, 학생들에 대한 태도와도 연결되어야 한다. 내 자녀와 조카와 같은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해서, 외모가 뛰어나서, 운동 능력이 우수해서, 리더십이 출중해서 예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결핍된 부분들이 있음에도, 혹은 그렇기 때문에 예쁘고 소중하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 세계와 지구가 취약하고 부족한 결핍된 존재들이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곳이라는 자각과 그에 기반한 질서야말로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에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아닐까 한다.



* 이 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2019년 「혐오, 교실에 들어오다」(경기도교육연구원 기획, 살림터)라는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 실천

강문민서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기획단장)

세계인권선언과 혐오 · 차별

국제연합(UN)은 1948년 12월 10일 제1 · 2차 세계대전의 참화 속에 일어난 인권유린에 대해 반성하고,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인류 보편의 약속인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하였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전반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를 인용하곤 한다. 그러나 정작 제1조 후반부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인류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를 인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인류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존엄하고, 평등한 세상이 가능하다는 표현으로, 여기에 혐오와 차별이 있을 공간은 없다.

'세계인권선언'은 더 나아가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제2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7조)'라고 규정하여 차별과 차별의 선동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혐오와 차별의 만연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7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인간은 본래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게 태어났다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혐오와 차별에서 자유로운가?

2010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주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여성, 5 · 18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특정 지역민 등에 대한 혐오로 확대되었다. 2016년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사건, 2018년 예멘 난민 반대 움직임에서 시작된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혐오 등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표현이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고,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3.8%가 혐오표현을 접했다고 응답하는 등 다수의 시민들이 혐오표현을 경험하였다고 답하고 있다.

이처럼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이 매우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의 현실인식이나 정책적 대응은 미흡한 수준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기획단 출범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차별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혐오차별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2019년 1월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위원장 직속으로 설치하였다.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은 혐오표현의 해악을 널리 알리고, 범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① 혐오표현 공론화 및 인식개선, ②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 견인, ③ 자율규범 마련 및 이행 확산 등 3대 핵심 전략 과제를 설정하였다.

전략 과제 설정 이후 기획단은 혐오표현의 개념과 유형, 대응의 중요성, 사회적 상황을 정리한 『혐오표현 리포트』를 발간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마주 캠페인", 토론회 및 지역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교육 · 홍보 콘텐츠를 보급하였다. 그리고 공적 영역에서의 혐오표현 대응을 위해 언론 · 교육 등 주요 영역에서 혐오표현 반대 실천선언과 정치인 혐오표현 예방 · 대응 의견표명을 이끌어 냈다. 또한 자율대응을 위한 협력관계를 온라인(포털사업자) 영역, 스포츠영역 등으로 확대하고,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혐오표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혐오와 차별 없는 인권 친화적 학교

사회에 넘쳐나는 혐오표현으로부터 학교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아동 ·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혐오표현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학교에서 혐오표현을 접했으며, 친구(54.8%)나 학교선생님(17.1%)으로부터 경험한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혐오표현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당시 학생 인권조례가 있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 교육청과의 혐오표현 대응 논의를 시작으로 2020년 5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혐오표현 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한 평등 실천을 약속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고,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방법을 담은 안내서와 해설서를 제작하여 전국 학교에 배포하였다.



UNESCO 사무총장 오드레 아줄리(Audrey Azoulay)는 2021년 3월 21일 국제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 국제포럼에서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백신이 필요하지만, 편견과 혐오와 싸우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며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은 기본적으로 공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는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포용사회, 평등을 실현하는 인권 존중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사회적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교육공동체의 선언은 다른 어떤 공동체의 대응 선언보다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실천이다.

든든한 지원자, 동등한 시민

학교와 가정은 완전하게 분리된 공간일 수 없다. 아동 · 청소년의 삶 속에서 두 공간,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공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아동 · 청소년 보호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혐오와 차별이 없는 평등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과 함께 자녀를 지지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든든한 지원자가 있다는 확신과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받는 경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권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줄 것이다.** 이미 각자 다른 방식의 노력으로 학생에게, 그리고 학교에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보여주는 보호자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학교사례 돋보기

학교 일상에 가까이 있는 혐오와 차별

'혐오'는 '그냥 감정적으로 싫은 것을 넘어서 어떤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태도'이고, '차별과 혐오의 표현'은 '인격을 훼손할 정도로 심각한 행위'입니다(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2018. 참고).



인권침해가 되는 혐오표현은 '니네 나라로 가라' 정도의 '차별, 적의나 폭력을 조장·선동' 하는 특별한 말이나 행동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가령 '다문화'라는 말은 교육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다른 학생을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의도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실제 교사가 교실에서 중국계 다문화 가정 학생을 '차이나(China)'라고 부르자 다른 학생이 '여기 여자 차이나도 있어요.'라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뉴시스, 2017. 5. 31.). 이에 대해 해당 지역 학생인권옹호관은 '다문화 가정 학생을 다른 학생들과 구별한 모욕적 언행'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학생 시기에는 사람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모방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격이 형성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흔히 접하는 말과 행동으로도 차별과 혐오의 태도를 자연스레 익힐 수 있으므로 교육공동체는 경각심을 갖고 인권교육 등을 통해 예방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동주(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란?

-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이 요구하는 인권친화적인 교육을 확인하고 실현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규범
- 공동체의 책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습권,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양심 · 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자치활동의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등을 규정함

"학교에 다니는 우리 자녀의 인권을 보호받고 싶다면 학생인권옹호관을 찾아주세요"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의 인권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호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 경기도교육청에 설치되어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학교 인권 옴부즈퍼슨(ombudsperson) 제도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상담 및 구제신청 방법

구분	1권역	2권역	3권역
관할지역	수원 평택 안성 성남 용인 여주 이천 광주하남 양평	안양과천 안산 화성오산 부천 군포의왕 광명 김포 시흥	고양 파주 동두천양주 연천 의정부 구리남양주 가평 포천
전화상담	031-820-0632	031-820-0633	031-820-0634
방문상담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3층 학생인권담당실		
구제신청	경기학생인권의광장 홈페이지(https://more.goe.go.kr/shr/index.do) '학생인권 상담 및 구제신청'		

※ 전화 및 방문상담 이용시간 : 매주 월요일~금요일(오전 9시~12시, 오후 1시~6시)
※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 구제신청 등의 청원권 행사는 비밀 보장되고,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총괄 · 검토] 심한수(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장)
이창휘(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기획 · 편집] 최지혜(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발행처] 경기도교육청
[발행일] 2021년 4월 30일
[디자인] PP디자인(031-247-2227)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